

과거와 현재, 미래의 꿈 스며든 ‘경이로운 방’이 열린다



창작단체 ‘달빛오디세이’가 8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100회 기념음악회를 선보인다. 지난 공연 모습.

〈김현옥 제공〉

지역에서 한 창작단체가 공연을 100번이나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차가운 겨울 밤, 그 오랜 시간이 마침내 하나의 이정표 앞에 다다랐다.

음악과 문학, 역사, 철학, 무용 등을 엮어온 창작단체 ‘달빛오디세이’가 8일 오후 7시30분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100회 기념음악회 ‘분터카머-경이로운 방’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한데 펼쳐 보이는 일종의 ‘기념 전시’와도 같은 자리다.

달빛오디세이의 시작은 2009년 광주 환벽당에서 열린 한 국악 작품 발표회였다. 독일식 현대음악을 전공한 작곡가 김현옥은 “아무도 안 듣는, 청중에게 고통을 주는 음악”으로 느껴지는 아카데미한 현대음악의 벽을 실감하며 악보가 아닌 ‘현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16세기 가사문학의 기억이 남아 있는 정자와 유배지, 식영정과 소쇄원 같은 곳을 찾아가 자연과 역사를 배경으로 한 공연을 시도했고 첫 환벽당 공연에는 500명 가까운 관객이 찾아왔다.

“현대음악임에도 관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다”는 김현옥은 이후 다양한 기획·아외 공연을 꾸준히하며 단체의 정체성을 넓혀갔다.

김현옥의 음악에는 개인의 기억과 도시의 상처도 깊이 새겨져 있다. 고등학생이던 시절 5·18 당

‘달빛오디세이’ 100회 기념음악회 ‘분터카머’ 8일 5·18기념문화센터 음악·역사·철학 결합 융복합공연

시 금남로에서 강제로 트럭에 실려 가는 이들을 마주했고, 시위를 하던 사촌오빠 덕분에 가까스로 학교 화장실에 숨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혼자 도망쳤다”는 죄책감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았다.

“음대생들은 데모를 잘 안 하잖아요. 그게 평생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른이 된 사람으로서 이 부채를 음악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죠.”

그 고민은 2019년 발표한 레퀴엠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으로 이어졌다. 5·18뿐 아니라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희생된 이들’을 향한 애도와 사죄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다. 김현옥은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나인인 57살이 되었을 때 더는 피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광주의 기록과 사회운동가이자 ‘광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최흥종을 그린 융복합음악극 ‘오방’ 역시 그런 흐름에서 나왔다. 그는 “한때는 역사를

작품 소재로 삼는 것이 마치 ‘팔아먹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책임과 기억을 음악으로 말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번 100회 기념음악회에 붙인 제목 ‘분터카머(Wunderkammer)’는 16~18세기 유럽 귀족의 애장품 방을 의미한다. 김현옥은 이 공간을 “각기 다른 것들이 모여 서로를 비추는 경이로운 방”이라 설명하며 “달빛오디세이가 쌓아온 공연들과 함께 해 준 사람들을 한 무대에 담아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그가 오랜 시간 공들여 온 작품들을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엮는다. ‘광주의 아버지 최흥종 오방’, 레퀴엠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주요 장면을 비롯해 나희덕 시인의 ‘들리지 않는 노래’, ‘연가’, 이성부 시인의 ‘기도’·‘전라도’가 새롭게 무대화된다. 한국 민요를 클래식 기타로 재해석한 ‘물레타령’ 등도 선보인다.

연주에는 그라토(Grato) 클래식 기타 앙상블, 광주체임버오케스트라, 성악가 박성경·정상희·신연석·조재경·김지옥 등 약 50명의 전문 예술가가 참여한다.

김현옥은 “이번 100회 기념 음악회는 예술가와 관객, 공간을 내어준 분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무대에 무엇보다 그간의 길을 함께해 준 이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ju.co.kr

광주미협 제13대 회장 선거 단독 후보 등록

문인화가 이병오…두번째 도전 20일 시립미술관 대강당서 투표

지난 5일 마무리된 (사)광주미술협회(회장 박광구·광주 미협) 제13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 결과 최종 1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광주 미협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후보 등록 결과 문인화가 이병오 작가(67)가 단독 입후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작가는 지난 2009년 선거 당시 출마한 적이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이번 선거는 현 박광구 회장의 임기 만료를 2달여 앞두고 진행되며 차기 회장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4년간이다.

지금까지 관례에 비춰보면 미협 차기 회장 후보군은 선거 공고가 나오기 전 복수 후보 구도가 형성돼 경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1명만 등록해 사실상 후보군 기근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 예술단체 가운데 최대 조직인 광주미협의 회장 선거가 예전만큼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은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전반적인 미술계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며 기탁금을 비롯한 선거비용 문제, 창작보다 지회 행사에 몰입해야 하는 부분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

박광구 회장은 “여러 후보가 나서 미협 선거가 축제 형식으로 치러지면 좋을 텐데 아쉽다”며 “8일 미협 차원에서 후보자 선거 관련 홍보물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광주 미협은 지난달 13일 제13대 지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 선관위 회의를 열어 위원명단을 공개했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장은 리원철 수석부회장이, 위원으로는 강동관·김상옥·김현진·최인옥·진하 씨



이병오

등이 선정됐다.

제13대 회장 선거는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러지며 광주미협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날은 정기총회가 10시부터 1시간 동안 예정돼 있다.

후보가 1명인 경우 과반수 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

단독으로 입후보한 이 작가는 7일 통화에서 “16년 전 미협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미협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 중에, 동료 선배들의 유무형의 ‘압박’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시립미술관이냐 ACC는 일반 작가들이 전시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면이 많다. 금남로 분관도 있지만 시설이 낙후된 데다 관람객이 거의 없는 편이다”며 “작가들이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을 마련하는 데 실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주시전 개최 예산이 많지 않은데 예산 확보에 진력을 다하겠다”며 “회원들간 교류를 비롯해 영호남 교류전 등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들도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1986~1994년 입선 및 우수상 수상, 동 초대작가,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광주시미술대전 1988~1994년 특선 및 대상 수상, 동 초대작가,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또한 전남미술대전 1982~1992년 입·특선 및 우수상 수상, 동 초대작가,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ju.co.kr

전남의 사계…공간을 탐한 시간

조영자 개인전, 30일까지 광주빛고을건강타운 갤러리 오늘

서양화가 조영자씨가 ‘나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오는 30일까지 광주빛고을건강타운 갤러리 오늘.

지난해 겨울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산촌에 작은 화실을 마련한 뒤 1년의 시간과 전남의 사계라는 공간을 탐(探)한 열다섯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각각의 작품들은 계절이 발현하는 독특한 미와 감성이 투영돼 있다.

‘마음, 그리다’ 시리즈는 해바라기와 맨드라미 등 자연을 잃어가며 삶과 숨을 쉰 순간들을 특유의 섬세한 터치로 표현해냈다. 맨드라미 그림에서는 전남 신안군 섬티아고 순례길(12사도길)을 걸으며 목격했던 자연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미메시스(존재론적 달기)를 구현하고 있다.

‘나에게 말을 거는 시간’ 시리즈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들판에 서있는 작가 자신을 발견한다. 조 작가는 “계절의 끝자락에서 차분히 나를 돌



‘나에게 말을 거는 시간’

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시를 열었다”며 “지역의 공간과 사계의 아름다움과 특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 작가는 호남대학교 예술대학을 나와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초대전, 스페인 북여행전 등을 가졌다. 현재 미술치료, 색채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ju.co.kr

판소리 다섯 바탕 현대적 인물로 ‘열어볼 결심’

광주시립창극단 특별마당창극 12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K-POP부터 트로트, EDM까지. 판소리가 무겁고 어렵다는 편견을 거둬낼 유쾌한 창극이 연말 무대를 찾는다. 춘향과 심청, 흥보 같은 익숙한 고전 인물들의 소동에 한바탕 호탕하게 웃고 나면 묵었던 고민이 조금은 풀리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듯하다.

광주시립창극단의 특별기획공연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이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5월 초연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한 작품이 송년 공연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작품은 현대적 인물로 재해석된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여며 벌어지는 이야기기를 풀어낸다. 도화동 북덕촌을 배경으로 흥보의 초대 편지를 받고 모인 춘향·심청·심학규·토씨·갈동 등이 선물을 차지하기 위해 소동을 벌인다. 고전 속 인물들의 후일담을 오늘의 감성으로 비틀어 내 세대와 상황이 뒤섞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연달아 펼쳐진다.



광주시립창극단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 지난 공연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 창극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적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는 점이다. 시니어 강단에서 인생을 살피하는 심학규, 연예기획사 대표가 된 춘향, 평통 브랜드 CEO로 변신한 심청 등 익숙한 인물들이 새로운 캐릭터를 입으며 극에 유머와 현실감을 더했다. 음악 역시 판소리를 기반으로 K-POP, 트로트, EDM 등 다채로운 장르를 자연스럽게 섞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구성했다.

김용호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오진욱 연출, 임영욱 작가, 홍정의 작곡, 신유진 작창, 배승환 안무 등 지난 초연 당시 호흡을 맞췄던 스태프들이 다시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S석 2만원·A석 1만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